

주소어 **농심**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기업, '농심'

21세기를 흔히 '경쟁의 시대'라고 한다. 더욱이 지난 한 해 동안 경기가 침체되고,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닫히면서 단순히 경쟁을 벌이는 시대가 아닌 '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식품 업계의 경쟁 또한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기에 많은 식품 전문기업 중에서 (주)농심을 향한 고객들의 사랑을 '대기업이니까'라며 쉽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한글인터넷주소로 단 한번에!

"기억하기 쉽고, 편하고 빠르고... 일일이 한글인터넷주소의 편리함에 대해 설명하자면 끝도 없죠. 하지만 무엇보다 검색사이트를 통해 몇 개의 다리를 건너 접속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단 한번의 한글 타자만으로 농심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주)농심의 대표홈페이지에 한글인터넷주소를 도입한 시스템개발팀 김은성 씨의 말이다. 현재 농심은 100여 개의 한글인터넷주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20여 개 브랜드의 한글인터넷주소를 가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글인터넷주소는 대기업으로서 기업이미지와 브랜드명의 방어차원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소창에 한글로 '농심'만 치면 저희 홈페이지로 연결 됩니다. 물론 '새우깡'이라고 치면 브랜드의 홈페이지로 이동하겠죠. 아주 사소한 보일 수 있지만 꼭 막힌 기업이 아닌 '열린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고객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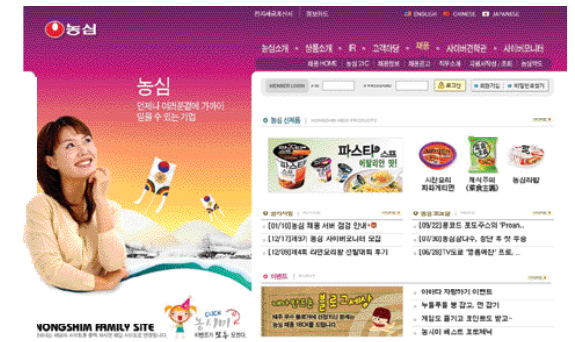
넷주소로 사용함으로써 자사의 고유 브랜드명을 지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한글인터넷주소가 일반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 기업들이 주소명을 가지고 다루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농심은 바로 이런 사소한 분쟁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보다는 먼저 등록, 활용함으로써 한 걸음 앞서 나가고 있다.

새우깡부터 신라면까지

1965년 설립된 농심은 현재 세계 8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 공장만도 5개를 지닌 식품 전문기업이다. 1971년 새우깡을 개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식품 전문기업으로 성장한 농심은 이후 양파링, 신라면, 너구리 육개장사발면 등 다양한 제품을 히트시키며 식품 관련 최고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주)농심은 100여 명의 연구원들과 장학사업 등의 공익활동까지 '완벽한 제품',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확립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글인터넷주소는 바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우깡부터 신라면까지 전 제품에 편리한 한글인터넷주소를 사용함은 물론이고, 고객의



▲ (주)농심은 회사명은 물론 새우깡, 신라면, 웰치까지 모든 브랜드를 한글인터넷주소로 등록해 활용하고 있다

모니터활동을 통한 투명한 경영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글인터넷주소로 획기적인 홍보효과를 노린다고 하면 식품 업계에선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해도 한글인터넷주소는 분명 획기적인 아이템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느 기업이나 단체, 심지어 개인조차도 한글인터넷주소를 활용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농심의 저력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화려하고 값비싼 광고가 아닌 자연스럽게 고객에게 다가설 수 있는 한글인터넷주소를 회사명은 물론 각 브랜드에 '당연히' 사용해온 전략에 말이다.

한글인터넷주소로 고객과 함께하는 (주)농심이 세계 위에 우뚝 설 그날을 기대하며 그 힘찬 발걸음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낸다. n